

“국정 운영방식 바꿔라”...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

제22대 총선 결산

범야 192석 압승... 국힘 참패
민주 175·국힘 108·조국 12석
정권심판·검찰개혁 표심 반영
尹 “국정쇄신”... 총리·참모 사의

정권 심판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관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며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마련됐다.

11일 오전 10시30분께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하고 비례 의석은 14석을 얻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면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 등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긴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이후 집권당이 얻은 의석수 중 가장 적다.

지역별 의석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의 28석을 모두 지켜냈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강세지역인 대구·경북(TK)의 25석을 모두 차지했다. 40석이 걸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했지만, 결국 국민의



광주 당선인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지역 당선인 8명이 11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시민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힘이 80% 이상인 34석을 확보했다.

승부는 서울·경기 수도권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갈렸다. 48석이 걸려있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37석을 가져갔으며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60석)에서도 민주당이 53개 지역에서 승리해 21대 총선(51곳) 기록을 깼다. 충청권 28석 중에서도 민주당이 21석을 챙겼다.

이같은 범야권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는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그동안의 국정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라는 분석이다.

역대 최대 격차의 기록적인 ‘여소야대’ 정국에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이 18석을 모두 석권하며 이번 없는 결과를 맞았다. 다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공천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았던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드러났다는 평가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지역구 당선자에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앞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는 조국혁신당이 47.72%, 더불어민주당이 36.26%로 조국혁신당이 11.46%p 앞섰으며 전남도 조국혁신당 43.97%로 39.8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보다 4.09%p 높았다.

지역구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비례대표에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서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라는 양대 목표를 모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 호남권에서 공천 잡음, 정책 실종 등으로 신뢰를 잃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 관련기사 2·3·4·5·6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호남인입니다
(603/1000)



한지성 ▶ 관련기사 18면
모델아카데미 대표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전남 곳곳 추모행사

12~20일 5·18광장 시민분향소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린다.

11일 세월호참사10주기광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12~20일 오전 9시~오후 8

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이 기간 언제든지 분향소에 방문해 헌화·분향·추모 메시지 작성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

13일 오후 2시~6시 봉선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주최하는 광주청소년지역문화제

가 진행된다. 문화제에서는 노란 팔찌 만들기, 응급처치 교육, 생활안전퀴즈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같은 날 목포 평화광장에서도 오후 4시 16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부대행사 및 추모공연과 함께 목포시민 304명이 참여해 세월호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거대한 리본을 완성하는 퍼포먼스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펼쳐질 예정이다.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2시30분 세월호 선체가 거처된 목포신항에서 4·16재단이 주최하는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래와 그림 등을 선보이는 ‘예술인행동장’이 열린다. 오후 7시 광주시민상주모임이 주최하는 기억문화제가 개최된다.

경주비 기자

지난 4년간 지역민들과 함께했던 콘텐츠 ‘광주사람들이 호남인입니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술·문화·체육 등 전 분야의 명인·명장·화제의 인물을 깊게 조명합니다. 광주·전남을 넘어 호남 사람 모두와 호흡하고 소통하길 소망합니다. 새 단장된 ‘호남인입니다’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안전한 발걸음

2024년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중소조선연구원은 중대재해 예방 및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대응 강화를 목표로 중 소형 조선소와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생산 현장의 위험 요소 제거, 국제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요기업을 찾습니다.

지원 내용

- HSE 기술지원 : 맞춤형 HSE 솔루션 제공, 스마트 안전 시스템 조성
- HSE 시설지원 : 조선업 생산현장의 위험요소 제거 시설 구축
- HSE 인증지원 : 안전보건 및 환경 경영체계 공인기관 인증 지원
- 지원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 ※ 사업 지원기간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요기업 신청 자격

- 국내 중 소형조선소, 대형조선소의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기업
- 국내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 보유 기업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업

지원기준

- HSE 기술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1.2억원, /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20% (현금 10%, 현물 10%)
- HSE 시설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0.25억원, /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20% (현금 10%, 현물 10%)
- HSE 인증지원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 상기 기업부담 20%는 최소 부담률로서 추가 부담이 가능함
- ※ 단, 현금 10%는 기업 선정 후 공공기업으로 이제 증명확인 후 기술지원 계약 체결함
- ※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 우대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8일(월)부터 2024년 4월 26일(금)까지
- 신청 방법 :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메일로 신청
- 문의 : 중소조선연구원 생산기술고도화센터 (051-974-5547 / tech@rims.re.kr)
카카오톡 오픈채널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검색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양식, 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rims.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